

“10일간 멈춤 운동 동참해주세요”

장수군, 마스크 착용·만남 자제·개인 방역 철저 준수 등 당부

장수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장수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2차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13일 장수군은 코로나19 발생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발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0일간 멈춤 운동' 내용은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꼭 착용하기 ▲가족과 지인 만남은 자제하기 ▲불필요한 관내·관외이동 자제하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및 가족, 외부인의 장수군 방문과 만남 자제 등이다.

강화된 장수형 거리두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군은 이날부터 19일까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인 75세 이상, 노

인 시설 관계자 등 1,35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한누리전당 접종센터에서 진행되며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현재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까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장수보건의료원, 장수군청광장, 장수·장계시장, 계남문예복지관, 산서면사무소, 천천보건지소, 반암면사무소 등 8곳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총 1만600여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강화하고 장수·장계시장 등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공공시설물

44개소에 대해 운영을 중단했다.

장영수 군수는 "12일 검사자중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방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0일간 잠시 멈춤 운동'의 내용을 토대로 전 군민들이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장수와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수군은 온 행정력을 투입해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12일 검사자 4,466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3일 오전 기준 총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상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진안 산림치유원 현장방문

조성사업 추진현황·계획 공유

진안군은 13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이상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자들과 국립지리산 산림치유원 추진현황과 이와 관련된 연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상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전춘성 진안군수, 박성호 전라북도 산림복지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회의에서 산림청은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립지리산산림치유원(이하, 산림치

유원)은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5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설계와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6월 중에는 실시설계·용역 적격자를 선정, 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11월에는 본격적인 핵심시설지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국립지리산산림치유원 지역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 산림치유 휴양시설 권역화를 위한 신평재 개발, 죽도 지방정원 및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같은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현장을 방문한 이상의 국장은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진안군·전북도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림치유원의 가치증진을 통한 산림치유 거점 조성과 지역상생 기반 마련으로 치유원과 지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우리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며 "대면, 비대면 관계없이 오늘과 같은 소통과 협의의 시간을 자주 갖고, 지역과 치유원이 성공적으로 상생하는 사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前 주교황청 대한민국대사관 김경석 대사, 진안 방문

진안군은 지난 12일 前 주교황청 대한민국대사관 김경석 대사(이하 김경석 전 대사) 내외가 국내유일 홍삼특구의 고장, 진안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김경석 전 대사 내외는 오전에는 진안군수와 홍삼산업에 대한 면담을 하고, 홍삼연구소를 방문하여 진안군 품질인증제도와 진안홍삼의 성분과 우수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홍삼한방센터와 클러스터 사업단을 방문하여 인삼 시장 분위기

와 홍삼유통에 대해 현장설명을 들은 후 송화수 홍삼기업을 방문하여 명인 홍삼의 역사와 증삼방법 등에 대해 청취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김경석 전 대사는 "외교관 재직시절 인삼이나 대기업 홍삼으로 선물을 했었는데 진안군에 와서 보니 진안홍삼이 대기업 못지않게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홍삼 산업 발전을 위한 진안군의 그동안 노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기회가 되면 민간 외교관으로서 진안홍삼을 널리 알

리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안홍삼은 대기업 어느 기업 제품보다 홍삼의 성분과 효능은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앞으로 진안홍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안군과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 4월 군수 품질인증 홍삼 제품을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를 통해 바티칸 교황청에 전달해 현지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12일부터 무주군 공무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본격적인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

무주군, 영농철 맞아 공무원들 농가 찾아 일손돕기 나서

지난 12일부터 무주군 공무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본격적인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 릴레이를 시작했다.

공무원들이 먼저 일손돕기에 나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다. 과수·원에 분야는 특성상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무주군의 경우 사과, 복숭아 등 과수에 집중돼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절차가 힘들면서 일손창구가 막혀 있어 농민들은 더욱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을 도입했다.

무주군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은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담당 읍·면 농가들을 찾아 열매수기, 잎 따기 등을 돕는다. 봉사는 5월부터 9월까지, 가을철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공무원 희망농촌 봉사활동'은 농

가부담 경감과 공무와 민원상담 및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도 꾸렸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상황실장을 맡고 농업정책과장이 총괄반장을 맡았다.

지난 13일까지 전라북도청 대외협력국을 비롯해 농업전북경영기확산과 농업무주군지부와 구천동농협, 무주농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사과 및 수박, 복숭아 등 관내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적과와 고추심기, 수박 비닐작업, 잡초제거 등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증가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가암 검진·의료비 지원

무주군이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무료 암 검진 및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광판과 반딧불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저소득(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대상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항목은 위암(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유방암(유방촬영,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분변 검사, 만 50세

이상 1년마다), 간암(간초음파와 혈청 AFP검사,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자), 자궁경부암(자궁경부세포검사,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폐암(저선량 흉부CT검사, 만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며 무주군보건의원에서는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검진이 가능하다.

저소득 주민 중 조기 암 검진을 받은 주민 중 최종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암종은 소아암(모든 암종)과 성인암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종,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준공

진안군은 13일 청정 환경을 지키고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한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진안군 주변면 운봉리 일원의 구봉산 관광지, 상양명, 하양명 및 구암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총사업비 53억원의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신축설 65톤/일, 하수관로 6.1km, 배수설비 91개소, 맨홀 펌프장 6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여 정삼 가동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함으로써 용담호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 정화조를 폐쇄함에 따라 악취 개선과 매년 정화조 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했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부서별 일자리 관련 정보 공유 논의

무주군이 군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인력증가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은 13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핵심일자리 과제 선제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일자리 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았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실상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는 산업경제와 일자리팀을 비롯해 평생교육팀, 여성복지팀, 노인복지팀, 농정기획팀, 농촌관광팀과 각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 팀들은 핵심 일자리 추진과제 선정, 일자리 집행상황 수치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협업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정보 교환과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